

발신자 : 동북 전노협-동일본대진재대책본부

<2011년 메이데이에 보내는 메시지>

메이데이 집회에 참여하신 동지 여러분께 일본 동북지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부를 괴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남북 500킬로미터, 동서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각변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13만 명이 지금도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개호시설 입거자, 자택요양자를 비롯한 소위 '재해 약자(災害弱者)'들은 잦은 여진 속에서 극도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빠른 환경개선은 물론, 살아가기 위한 희망, 공생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풍요한 어장이던 (동북 지방) 연안부에서는 가옥뿐만 아니라 어업, 수산업, 농업까지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능도 대부분이 상실되었습니다.

극심한 지진과 큰 쓰나미가 동북지방과 북관동 지방 연안부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휩쓸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가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동경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일본 정부에 의한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겹쳐져서 드디어 레벨 7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간 정부의 대응은 피난 지시와 오염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에서 계속 실패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원전 사고를 한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가진 힘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대 자민당 정부의 정책과 재계의 자세가 규탄받아야 할 것도 명백합니다. '일본의 원전은 쓰나미를 잘 견디어 훌륭하다'고 재빨리 칭찬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그 후 '나라의 안전기준이 엄하지 않았다' '원전 배상은 나라의 책임' 이라고 하면서 동경전력과 원자력산업을 지키고 원전 추진을 견지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원전이 약하다는) 경고를 하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위험성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온 점입니다. 정계나 재계, 평론가들이 '상정 외'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단체, 전력자본, 원전관련기업, 통신산업성과 대학, 언론사 등 원전 추진을 기도하는 세력을 포위하며 세계 민중들과 연대해서 '탈 원전' 사회로의 전환을 함께 시작합시다!

'부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북 지방 농업을 TPP 대응형으로 개혁할 호기' '도주제(道州制)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결합시다!

피재지역에서는 도산과 폐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 '편승 해고'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추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국과 전세계에서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생활, 노동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전노협은 피재지역 주민들의 절망과 희망을 함께 공유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메이데이 집회 성공과 함께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고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면서!

2011년 5월 1일

동북 전노협-동일본대진재대책본부